

2019년 6월 7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멕시코 관세 부과 연기 기대속 상승 백악관, 멕시코가 협상을 위한 추가 시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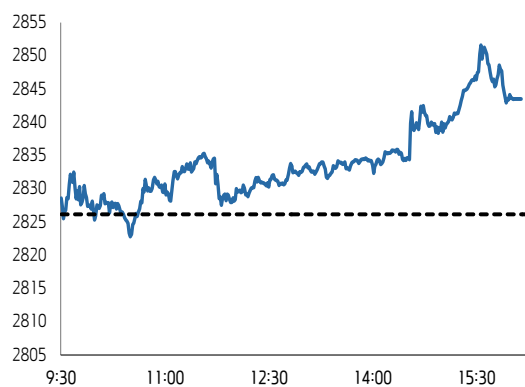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미국의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가 높아지자 장중 한 때 하락 전환. 그러나 드라기 총재가 필요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 하자 반등에 성공. 이런 가운데 장 후반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연기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폭 확대(다우 +0.71%, 나스닥 +0.53%, S&P500 +0.61%, 러셀 2000 -0.22%)

미 증시는 ①드라기 ECB 총재 발언 ②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 발언 ③트럼프의 중국 관세 관련 발언 ④미국의 멕시코 관세 연기 기대 보도 등으로 변화. 각국 중앙은행들의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ECB는 2020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 더불어 올해 유로존 성장률을 1.1%에서 1.2%로 상향 조정. 한편, 드라기 총재는 "필요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 이런 가운데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는 상반기에 예상보다 견고했지만 향후 전망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언급. 주목할 부분은 "수익률 곡선 역전 등을 이유로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한 점. 이를 감안 시장이 예상하는 연준의 금리인하 정책 가능성은 약화될 수 있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시사.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 결국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는 긍정적. 이런 가운데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 미 언론은 백악관이 멕시코와의 이민문제 협상을 이유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 연기할 수 있다고 보도.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미국의 대 멕시코 관세 발효를 막아야 한다며 조만간 민주당과 협력해 뜻을 밝힘.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69.11	+0.10	홍콩항셱	26,965.28	+0.26
KOSDAQ	707.75	+0.74	영국	7,259.85	+0.55
DOW	25,720.66	+0.71	독일	11,953.14	-0.23
NASDAQ	7,615.55	+0.53	프랑스	5,278.43	-0.26
S&P 500	2,843.49	+0.61	스페인	9,169.20	+0.20
상하이종합	2,827.80	-1.17	그리스	816.95	-0.54
일본	20,774.04	-0.01	이탈리아	20,177.81	+0.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에너지 업종 강세

GM(-0.76%)은 멕시코 관세 부과 지연 가능성이 부각되었으나 여전히 하락 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를 위해 10년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기차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해외 전기차 업체들의 부담이 부각된 데 따른 결과로 추정한다. 반면, 테슬라(+4.76%)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으며 2분기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브로드컴(+2.66%)은 1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 했다.

버텍스(-3.19%)는 치료법에 대해 세제지원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환자당 10만파운드 이상의 가격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여파로 하락 했다. 이 영향으로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셰브론(+2.58%)을 비롯한 에너지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멕시코 관세 부과 지연 가능성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82%	대형 가치주 ETF(IVE)	+0.67%
에너지섹터 ETF(OIH)	+0.90%	중형 가치주 ETF(IWS)	+0.43%
소매업체 ETF(XRT)	-0.37%	소형 가치주 ETF(IWN)	+0.03%
금융섹터 ETF(XLF)	+0.37%	대형 성장주 ETF(VUG)	+0.77%
기술섹터 ETF(XLK)	+1.16%	중형 성장주 ETF(IWP)	+0.6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14%	소형 성장주 ETF(IWO)	-0.34%
인터넷업체 ETF(FDN)	+0.62%	배당주 ETF(DVY)	+0.53%
리츠업체 ETF(XLRE)	+0.1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0%
주택건설업체 ETF(XHB)	+0.2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4%
바이오섹터 ETF(IBB)	-0.98%	미국 국채 ETF(IEF)	-0.02%
헬스케어 ETF(XLV)	+0.51%	하이일드 ETF(JNK)	+0.25%
곡물 ETF(DBA)	+1.34%	물가연동채 ETF(TIP)	-0.06%
반도체 ETF(SMH)	+1.38%	Long/short ETF(BTAL)	+0.2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7.85	+1.73%	+1.97%	-4.90%
소재	356.70	+1.13%	+6.98%	+3.94%
산업재	630.22	+0.01%	+2.68%	-1.62%
경기소비재	899.40	+0.50%	+0.90%	-3.68%
필수소비재	593.26	+0.81%	+2.63%	+1.81%
헬스케어	1,037.29	+0.32%	+2.20%	+0.72%
금융	449.52	+0.37%	+2.84%	-0.83%
IT	1,308.50	+1.09%	+2.30%	-2.42%
커뮤니케이션	156.67	+0.44%	-2.57%	-4.63%
유틸리티	304.80	+0.44%	+4.15%	+5.54%
부동산	230.38	+0.15%	+3.15%	+4.6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되돌림 현상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보합을, MSCI 신흥 지수 ETF 는 0.05%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휴장이었으며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7.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분쟁 이슈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3,250 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던 대화 중단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도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을 높일 수 있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여기에 미국의 대 멕시코 관세 부과가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다. 시장에 부담을 줬던 무역분쟁 이슈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목할 부분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했으나,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드라기 ECB 총재는 필요하면 금리인하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점을 감안 당장 인하할 가능성은 약화되었다. 지난 화요일 파월 연준의장도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 했으나, “새로운 경기 침체에 대응을 하기 위해 연준은 최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 연준은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좀더 경제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인하가 반영된 금융시장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고용지표 견고

1 분기 미국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이 전년 동기 대비 2.4%, 전분기 대비로는 3.4% 상승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되었던 예비치(qoq 3.6%)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 만 8 천건으로 예상치(21 만 5 천건)을 소폭 상회했다. 4 주 평균을 보면 21 만 5 천 건으로 지난주 발표치(21 만 7,500 건) 보다는 감소 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채금리 상승 전환 성공

국제유가는 장 초반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며 오후에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멕시코와 미국간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매일 60~70 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수출되고, 미국에서 멕시코로 매일 100 만 배럴 가솔린이 수출된다.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소비가 감소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관세 부과 지연은 원유시장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다.

달러화는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다만, 멕시코 관세부과 지연 기대로 약세폭이 축소되었다. 유로화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필요하면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주장 했으나,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에 대해 1.1%에서 1.2%로 상향 조정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달러화도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연준의 정책변화 가능성을 언급 했으나, 즉각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발언을 하자 약세폭이 일부 축소되었다.

국채금리는 트럼프의 대 중국 추가 관세 부과 언급으로 하락 출발 했으나,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수익률 곡선 역전 등을 이유로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하자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즉각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장 후반 미국이 대 멕시코 관세 부과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다. 한편, 단기물은 상승 마감하는 등 최근 하락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

금은 달러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0%, 철근도 0.16%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2.59	+1.76	-7.07	Dollar Index	97.069	-0.26	-1.09
브렌트유	61.67	+1.72	-5.60	EUR/USD	1.1269	+0.43	+1.26
금	1,342.70	+0.68	+3.89	USD/JPY	108.54	+0.07	-0.99
은	14.905	+0.77	+2.86	GBP/USD	1.2689	+0.02	+0.64
알루미늄	1,776.00	+0.28	-0.34	USD/CHF	0.9924	-0.24	-1.53
전기동	5,808.00	+0.02	-0.75	AUD/USD	0.6975	+0.07	+0.91
아연	2,503.00	+1.67	-2.26	USD/CAD	1.3371	-0.33	-0.96
옥수수	420.50	+1.39	-3.61	USD/BRL	3.887	+0.15	-2.39
밀	510.00	+3.92	-0.87	USD/CNH	6.9278	-0.01	-0.02
대두	868.75	-0.11	-2.28	USD/KRW	1178.60	-0.36	-1.28
커피	102.05	+2.98	-0.29	USD/KRW NDF 1M	1177.75	-0.17	-0.9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126	-0.87	-8.72	스페인	0.606	-2.10	-15.30
한국	1.650	-3.50	-8.50	포르투갈	0.667	-0.70	-19.20
일본	-0.120	+0.30	-4.10	그리스	2.898	-4.40	-14.40
독일	-0.239	-1.30	-6.40	이탈리아	2.485	+1.70	-16.90